

제구력에 이어지는 찬사...류현진은 “놀라운 일 아냐” 반응

시속 100km 중반대 커브로 상대 타자들 타이밍 뺏어 클리블랜드전 5이닝 2자책 팀 8-3승리...시즌 3승째

30대 중반의 나이에 3번째 팔꿈치 인대접합 수술(토미존 서지리)을 받고 14개월에 걸친 재활 끝에 돌아온 류현진(36·토론토 블루제이스)은 연일 호투를 선보이고 있다. 그에게 의혹의 시선도 뒤따랐지만, 메이저 리그(MLB)에서 경쟁력을 뽐내 입증하고 있다. 류현진이 승승장구할 수 있는 이유는 칼날 같은 제구력이다. 다양한 변화구를 적재적소에 정확하게 던지며 상대 타자들을 농락한다. 27일(한국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의 로저스센터에서 벌어진 클리블랜드 가디언스전에서 마찬가지였다. 류현진은 5이닝 4피안타(2홈런) 3실점(2자책점)을 기록하고 팀의 8-3 승리에 발판을 마련해 시즌 3승째(1패)를 따냈다.

70개의 공을 던진 류현진은 삼진 5개를 잡았고, 볼넷은 하나도 내주지 않았다. 직구 최고 구속은 시속 90.8마일(약 146.1km)에 머물렀지만 체인지업, 커브, 커터를 적절히 섞어던지며 클리블랜드 타선을 요리했다. 특히 시속 100km 중반대의 커브로 상대 타자들의 타이밍을 빼앗으며 ‘느림의 미학’을 선보였다. 강속구가 주를 이루는 MLB에서 시속 140km 중반대 직구로도 살아남는 류현진의 제구력에 연일 찬사가 나온다. 하지만 류현진은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날 경기를 마친 뒤 류현진은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솔직히 제구력을 빨리 되찾은 것이)무척 놀라운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러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을 되찾은 것”이라며 “나는 건강하다고 느끼고 있다. 그래서 원하는 곳에 정확하게 공을 던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신인 2루수 데이비스 슈나이더는 류현진의 승리 도우미로 활약했다. 슈나이더는 1회 말 역전 투런포를 날리는 등 3타수 3안타 3타점 3득점으로 맹타를 휘둘렀다. 이날 5일 처음 빅리그 무대를 밟은 슈나이더는 10경기에서 타율 0.424(33타수 14안타) 4홈런 9타점에 OPS(출루율+장타율) 1.373으로 맹활약 중이다. 류현진은 후배의 활약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류현진은 “슈나이더는 우리 팀에 큰 도움이 되는 선수”라며 “빅리그에 풀업된 이후 공격과 수비, 주루 모두 대단하다. 팀을 위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다.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류현진이 26일(현지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의 로저스센터에서 열린 2023 메이저리그(MLB) 클리블랜드 가디언스와의 경기에 선발 등판해 1회 투구하고 있다.

뉴시스

처서 지나자 가을여왕 김수지 우승...통산 5승+메이저 2승

4R 6타 줄여 최종 합계 13언더파 275타 1위...9월과 10월에만 4승 올린 김수지, 첫 8월 우승

더위가 그친다는 절기 처서(處暑)가 지나자 ‘가을여왕’ 김수지(27·동부건설)가 다시 정상에 올랐다. 김수지는 27일 강원 춘천시 제이드필리스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메이저 대회 한화 클래식(총상금 17억원·우승상금 3억6000만원) 최종 라운드에서 6타를 줄여 최종 합계 13언더파 275타로 1위에 올랐다. 전날 전예성과 공동 선두였던 김수지는 이날 파5 4번홀 보기로 불안하게 시작했지만 5번홀에서 버디를 잡아 반등한 뒤 타수를 잃지 않았다. 7번홀에 이어 10·11·12·13번홀에서 연이어 버디를 잡아낸 김수지는 마지막 18번홀에서 긴 퍼트를 성공시키며 우승을 자축했다. 김수지는 통산 5승째이자 2번째 메이저 대회 우승을 달성했다. 김수지는 2021년 하이트진로 챔피언십에서 첫 메이저 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가을에 강해 가을여왕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김수지가 8월에 우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수지는 2021년 9월 제10회 KG-이데일리 레이디스 오픈, 같은 해 10월 제21회 하이트진로 챔피언십, 지난해 9월 OK금융그룹 박세리 인비테이션얼, 같은 달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 등 9월과 10월에만 우승했는데 이번이 처음으로 8월에 우승을 달성했다. 다만 올해도 김수지는 여름이 끝나고 가을로 접어드는 시점에 우승을 차지해 가을여왕임을 재차 입증했다. 지난 23일이 더위가 가시기 시작한다는 처서였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에서 뛰는 아타야 티피쿤(태국)과 아예원이 10언더파로 공동 2

위에 올랐다. 9언더파를 친 전예성이 4위, 8언더파를 기록한 정윤지가 5위, 이민영이 7언더파로 6위, 이다연이 6언더파로 7위다. 공동 8위는 5언더파를 친 박민지와 박보미, 공동 10위는 4언더파를 친 박현경과 박도영, 안승이다.

뉴시스



정찬성(왼쪽)은 26일(한국시간) 밤 싱가포르 인도어 스타디움에서 열린 UFC 페더급 경기에서 맥스 할로웨이(미국)계 3라운드 23초 만에 KO패를 당했다.

‘코리안 좀비’ 정찬성 은퇴 “과분한 사랑받아 감사” “모든 걸 이루진 못했지만 충분히 이룰 만큼 이뤘다”

해성 같이 나타나 한국 격투기의 거물이 됐던 ‘코리안 좀비’ 정찬성(36)이 세계 톱랭커들의 벽을 넘지 못하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은퇴를 선언했다. 그는 팬들과 자신을 도와줬던 격투기 관계자들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정찬성은 26일(한국시간) 밤 싱가포르 인도어 스타디움에서 열린 ‘UFC 파이팅 나이트: 할로웨이vs 코리안 좀비’ 메인 이벤트 페더급 경기에서 맥스 할로웨이(미국)에게 3라운드 23초 만에 KO패를 당했다. 지난해 4월 현 페더급 챔피언 알렉산더 볼카노프스키(호주)와의 타이틀전에서 4라운드 TKO패를 당했던 정찬성은 2연속 KO패를 기록했다. 통산 전적은 17승 8패를 기록했다. 정찬성은 자신의 SNS를 통해 “모든 걸 이루진 못했지만 충분히 이룰 만큼 이뤘다”며 “해운 것에 비해 과분한 사랑을 받은 것 같아 모두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전 UFC 페더급-라이트급 챔피언 코너

맥그리거(아일랜드), UFC 헤비급 챔피언 존 존스(미국), 전 UFC 플라이급-밴텀급 챔피언 헨리 세후도(미국), 전 UFC 플라이급 챔피언 드미트리우스 존슨(미국)을 비롯한 동료 선수들도 정찬성의 은퇴를 아쉬워하며 존경의 메시지를 남겼다. 맥그리거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정말 엄청난 편지와 경기였다. 정찬성과 할로웨이에게 경의를 표한다. 정찬성은 정말 잘했다. 코리안 좀비는 진정한 도전자”라고 말했다. 정찬성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그만큼 좋았을 줄 알았는데 눈물이 안 내네”라고 말한 후 “그만하는 이유는 내가 챔피언이 목적인 사람이기 때문이다. 나는 3등, 4등, 5등 하려고 격투기를 하는 게 아니라, 챔피언이 되기 위해 했다. 톱랭커들을 이기지 못하기에 이제 냉정하게 그만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은퇴 이유를 설명했다.

뉴시스

에인절스 단장 “8월초 오타니 에이전트가 MRI 거절”

투타를 겸업하는 메이저리그(MLB)의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29·LA 에인절스)가 팔꿈치 부상으로 등판이 불가능해진 가운데 에인절스 단장이 해명에 나섰다. AP통신과 야후스포츠 등의 27일(한국시간) 보도에 따르면 페리 미나시안 에인절스 단장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오타니가 이달 4일 시애틀 매리너스전에서 손에 경련 증상을 느꼈을 때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받고 제안을 했다”며 “하지만 오타니와 그의 에이전트가 거절했다”고 전했다. 미나시안 단장은 “왜 그랬는지 이해한다. 그들은 손가락에 경련을 느꼈을 뿐이고, MRI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믿었다”며 “대부분 손가락에 쥐가 난다고 해서 MRI 검사를 받지

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MRI 촬영을 한 것은 팔꿈치 부상을 당한 이후가 유일했다. 올해 초에도 오타니와 그의 에이전트가 MRI 촬영을 제안했지만 거절했다”고 덧붙였다. 올해에도 투타 겸업이 이어간 오타니는 투수로는 10승 5패 평균자책점 3.14, 타자로는 타율 0.307 44홈런 92타점 OPS(출루율+장타율) 1.084의 준수한 성적을 거뒀다. 하지만 부상으로 인해 올해 더 이상 투수로 뛸 수 없게 됐다. 한편 오타니는 이날 미국 뉴욕주 시티필드에서 벌어진 뉴욕 메츠와의 경기에도 2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해 3타수 2안타 1타점 2볼넷 2득점으로 활약, 에인절스의 5-3 승리를 이끌었다.

이강인·황희찬 등 줄부상...첫 승 노리는 클린스만호 빨간불

이강인·황희찬·조규성·오현규 부상...9월 웨일스·사우디와 A매치 2연전



감독 부임 마수걸이 승리를 노리는 위르겐 클린스만(독일) 축구대표팀 감독이 핵심 공격 자원들의 줄부상으로 올상이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에서 활약 중인 황희찬(울버햄튼)이 26일(한국시간) 영국 리버풀의 구디슨 파크에서 열린 에버턴과의 2023-2024시즌 EPL 3라운드에서 선발로 출전했지만 햄스트링 부상으로 인해 전반 45분만 소화했다. 영국 매체 ‘버밍엄 라이브’는 “게리 오닐 감독은 황희찬이 햄스트링 문제 때문에 교체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황희찬은 전반 25분 돌파 과정에서 네이션 패터슨의 강한 태클에 걸려 넘어졌다. 고통을 호소했고, 의무부의 치료를 받은 이후에 그라운드에 복귀했다.

아직 정확한 부상 정도는 알려지지 않았다. 현지 언론은 오는 30일 블랙풀과의 카라바오 컵 출전이 불투명하다고 내다봤다. 황희찬은 지난 시즌에도 햄스트링 이슈로 고생했다. 2022 카타르월드컵을 앞두고 부상 때문에 훈련을 정상적으로 소화하지 못했고, 올해 2월 부상이 재발했다. 지난 2라운드에서 시즌 첫 골을 터뜨리며 컨디션은 끌어올리는 과정이었기에 부상의 아쉬움이 더 크다.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PSG)에 입단한 이강인도 아프다. PSG 구단은 지난 22일 “이강인이 왼쪽 대퇴사두근을 다쳐 최소 A매치가 끝날 때까지는 치료에 전념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20일 톨루즈와 리그 2라운드 원정 경

기에서 선발로 출전해 약 51분을 소화했다. 특별히 부상 장면이 포착되진 않았다. 최근 훈련에 재개한 모습을 보였지만 경기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9월 A매치를 앞두고 아시아게임 대표팀에 양보 없이 반드시 호출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던 클린스만 감독으로서 난감한 장면이다. 이강인의 부상은 다음달 2022 한자우아시아 게임을 앞둔 황선홍호에도 약재다. 덴마크에 진출한 조규성(미트윌란) 역시 지난 21일 경기에서 경기 시작 20분 만에 허벅지 통증을 호소하며 교체됐다. 치료를 받은 조규성은 오른쪽 허벅지 부위에 테이핑을 한 채 벤치로 돌아갔다. 스코틀랜드 셀틱의 오현규 역시 부상에 시달리고 있다. 오현규는 지난 2일 아틀레틱 빌바오와 가진 친선경기에서 종아리를 다쳤다. 셀틱 구단은 부상 회복까지 최장 6주가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다른 유럽파 공격 자원 황의조(노팅엄)는 부상이 없지만 출전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어 경기 감각 유지가 변수다. 부임 후 2무2패로 아직 승리가 없는 클린스만 감독은 9월 A매치에서 마수걸이 승리를 노린다. 9월 8일 웨일스를 상대하고, 13일 사우디아라비아와 대결한다. 클린스만 감독은 28일 9월 A매치 소집 명단을 발표할 계획이다.